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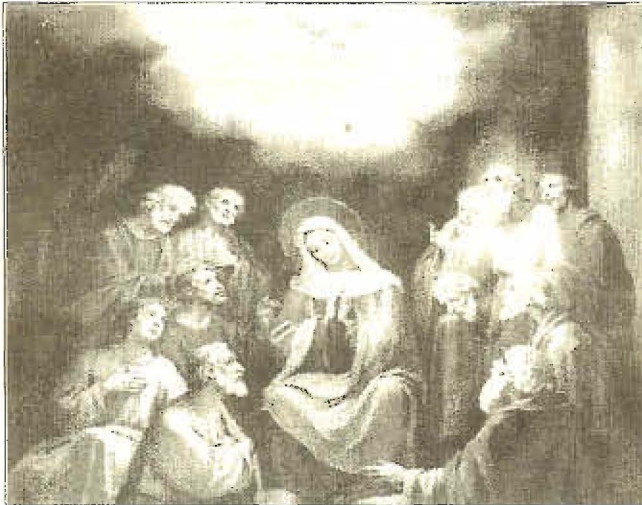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
제32권 26호(나혜) 2012-5-27

[묵상]



<성령 강림 대축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 안에 평화가 머물도록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숨을 쉬는 것.
그러나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
주님의 숨이
나의 들숨 날숨이 되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생명체가 생명체인 이유는
숨을 쉬기 때문이고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하느님의 숨을 쉬기 때문.
주님의 숨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쉬시어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오소서, 성령님.
머무소서, 성령님.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평회 (강제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길 바오로, 모광기 요셉, 권순봉 요안나, 김명수 모세, 연옥영혼들 (생)박인호 요한, 채순우 토마스
주 일 낮 미사	(연)김종길 바오로, 이태숙 카타리나, 이호순 프란체스카, 박영춘 안토니오, 홍숙현 아가다, 이상일 요셉,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지용애, 최병오 & 김금례, 금석주 모이세, 윤기출 마리아,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이정완 마리아 (생)새영세자들(17명),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신대철 알베르토, 장영우 엘리사벳, 성은영 에밀리, 정학순 발바라, 유재형 요셉, 정우석 루카, 임종택 베르나르도 & 임수연 에메리따, 김원영 알로이시오, 이 마테오, 이종민 요셉, 남명자 데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 -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2,3c-7.12-13

부 속 가 성령송가: 주보 3면 참조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요한(St. John) 20,19-23

영성제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특전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315	315	317
봉헌	266	267	265
성체	279	283	284
파견	316	316	33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37).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말한 바와 같이, 교회 교부들과 그들의 주석학적 접근에 새로이 귀를 기울이는 것도 올바른 성경 해석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들이 오늘날에도 매우 가치 있는 신학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통합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교부들은 첫째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현대 주석가들에게 성경에 대한 참으로 종교적인 접근을 가르쳐 주고, 또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 아래 역사를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체험과 친교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따르는 해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부들과 중세의 전통은 분명 현대 주석학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학적, 역사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자구적 의미 곧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내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성경의 여러 의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성경의 모든 의미들은 자구적 의미에 근거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부 시대와 중세에는 자구적 주석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주석들이 신앙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사이에 꼭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이행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사이의 단일성과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성적 의미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각각 신앙, 도덕, 종말론적 긴장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 비평 방법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그 한계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교부들의 주석으로부터 “성경 주석은, 그것이 성경 본문에 표현된 신앙의 실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핵심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현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겪는 신앙의 체험에 이 실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때에만 성경 본문의 고유한 의향에 진실로 충실하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만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며 우리 삶의 현재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얼마 전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한비아(비아)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주보>에 글을 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바람의 딸'이라 부르는 그분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매님은 오지탐험을 할 때나 긴급구호 중에 위험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닥치면 무엇보다 두려움이 나를 감싸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큰 소리로 크게 세 번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외침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현장에 가면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계심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하느님께서 나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한비아 자매의 식지 않은 열정과 에너지, 모든 활동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말은 유대인들이 평상시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기원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진정한 성령 안의 삶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갈라 5,19-23 참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은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은총을 많이 받아도 거짓된 삶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것처럼 늘 우리들 삶의 중심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성령송가 : 부 속 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아들에게, 성령 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중철 아브라함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아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 두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 일시 : 오늘 주일(27일) 성령강림 대축일 낮미사 중
- 새영세자 : 김정관 안셀모, 손재민 사무엘, 최기호 스테파노, 조정환 페트리시아, 최희수 소피아, 전선영 보나, 이명환 요셉, 조성덕 다니엘, 강영선 요세피나, 최난주 실비아(성인 10명), 김영서 레이첼, 로자다 채스민 안젤라, 김정재 마르코, 김정인 발렌티나, 이정화 소피아, 이용석 미카엘, 신희령 엘리시아 (주일학교 7명)
- 세례식이 끝난 후 강당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신영세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 ◆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 10명 견진성사 받았습니다. “축하!”
5월26일(토) 오전 10시 마가렛매리 본당에서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집전으로 백삼위 주일학교 고등부학생 10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 박경아, 최형찬, 앤드루 리, 최하준, 조나단 구, 앤디 배, 캐서린 한, 케빈 김, 애설리 신, 잔 박(이상 10명)

◆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종합우승 '백팀'

- 본당 체육분과를 비롯한 교우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로 한마당 가족체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특히 상품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종합우승 : 백팀
- 탁구 우승 : 토런스 남구역 (vs 서구역)
- 경품 1등 : 정기은 비오(김치냉장고)
- 경품 2등 : 유철희 바오로(TV 42")
- 경품 3등 : 박영수 다미아노, 케빈 송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요셉회 5월모임 변경

- 일시 : 체육대회 관계로 임시 변경
오늘 주일(27일) 낮미사 후 월드부페(카슨+ 웨스턴)
* 차편 제공 : 성당현관 앞에 대기
- 문의 : 신종철 아브라함 요셉회장 ☎(310)936-9202

- ◆ 어린이 복사단 월례모임/여름방학중 스케줄 제출
● 일시 : 6월2일(토) 오후 2시 성당
- 스케줄 제출 : 여름방학 중 자녀 일정에 따라 복사 스케줄 조정합니다.
- 문의 : 본당 수녀님,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백삼위 골프 토너먼트

- 일시 : 6월9일(토) 오전 11시30분
- 장소 : Los Verdes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남가주 M.E. 제69차 첫 주말강습 신청

- 일시 : 6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피정센터(샌퍼난도밸리)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故 이태숙 카타리나 님의 유족께서 교우들과 감사의 떡나눔
지난 5월13일 선종하신 이태숙 카타리나 님(PV구역)의 유족이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떡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 일시 : 27일 주일 학생미사/낮미사 후, 친교장
* 유족대표 : 남편 이봉덕 베네딕도 님

◆ 한국 가톨릭대학 '해외자녀들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

- 일시 : 7월1일~27일(4주)
- 주최 : 한국가톨릭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대상 : 해외교포 자녀 및 외국학생들의 한류체험
- 장소 : 김수환추기경 국제센터
- 신청 : www.catholic.ac.kr/-cukcamp
- 문의 : 이바오로 신부 ☎(202)965-1610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에 광고후원금을 보내오고 계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교우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27일(주일) : 친교자리 없습니다.(메모리얼데이 연휴)
- 6월3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3학년 짜장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원철 권태만 김병철 문충한 민순선 박기돈 박종민 송재훈 신순철 안민수 육근주 이종선 익명 임연조 주영석 차정애 최원석 최현찬 한혁수	성전헌금	강원철 권태만 문충한 민순선 박기돈 신순철 안민수 이일길 익명 최원석 최현찬 한혁수
	* 교무금 명단에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요.		
	합계 : \$1,610		합계 : \$720
미사헌금 : \$2,273		주보광고후원 : \$70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27일(메모리얼데이 연휴)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학생 영어미사는 오전 9시30분에 봉헌합니다.

첫영성체 예행연습 및 예식

- 리허설 및 고해성사 : 6월 2일(토) 오후 3시~5시
- 예식 : 6월3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에 입을 T-셔츠 공모전

- 대상 : 관심있는 고등학생(8-12학년)
- 마감 : 6월10일(주일)로 연장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 상품 제공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 \$50(마감 5월27일/6월1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 일시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남가주 소식

본당교우 김윤진 개인전 'The Catalina 2012'

- 일시 : 5월 30일(수)까지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제5회 2012 FIAT(피아트)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CA
- 참가비 : 무료(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
- 참가대상 : 주일학교교장/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 교육, 영성교육
- 신청서 다운로드 : www.fiat.org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데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등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5/9(수)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현 마리아 985-2882	김제영 바오로 834-8006 5/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2012년 제27차 청소년 주일 담화문(요약)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 4,4)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27차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청년 대회와 모든 결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다음 세계 청년 대회 주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9 참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기쁨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직한 세관장 자캐오를 방문하셨던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캐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었다”고 루카 성인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루카 19,5-6 참조)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온 삶을 바꾸고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열고 하느님께 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평화와 참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는 일들 안에 숨어 계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자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쁨은 사랑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성령의 두 열매입니다.(갈라 5,23 참조) 충실하고 한결같은 선행은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또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고, 지금부터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에 그 재능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한층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물질적 성공, 돈을 좇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공동체의 삶 안에서 형제적 친교를 키워 가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나눔과

관심과 배려의 탁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사절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나누어야 합니다. 가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소중한 보화를 담은 기쁨을 전하십시오.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적인 증인이 되십시오! 고통받는 이들과 기쁨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가져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기쁨과 다른 이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성적에 따라 장래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장래 희망을 위해 내 성적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신앙의 기쁨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습관을 키워 가도록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세속의 가치에 휩쓸려 불안해하며, 스스로가 왜곡된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안과 스트레스, 탈선과 무질서함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참된 희망과 기쁨, 참된 사랑과 자유는 교회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청소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주교 유흥식(라자로)